

안전한 소장품 포장과 보관

박진우 | 역사의 길 원랑선사탐비 앞 | 18:00~18:30

박물관 소장품이 전시되기 위해서는 수장고에서 전시실까지 가깝게는 수십 m에서 멀게는 지방이나 외국의 어느 박물관까지 수 천 km를 옮겨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격으로부터 소장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포장’을 하게 됩니다.

포장할 때 중요한 점은 재질, 모양, 상태가 각각인 소장품의 특성을 파악하여 약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모양을 만들어 충격을 분산시켜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포장 재료와 방법은 박물관이나 나라[國家]별로 조금씩 다르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지韓紙와 솜포대기(솜을 한지로 감싸 만든 것)로 소장품을 감싸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폴리에틸렌 폼을 소장품의 모양처럼 오려내고 그 안에 소장품을 넣는 방법도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금속이나 종이 등 소장품의 재질에 따라 포장 재료와 방법을 다양화 하고 있습니다.

전시되지 않는 소장품들은 ‘수장고收藏庫’라는 곳에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박물관 수장고는 소장품의 재질材質별로 보관하기 위해 공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재질에 따라 보관 환경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 종이, 섬유, 나무와 같은 재질은 습도를 높여주어야 하고 금속 재질의 것들은 습도를 낮게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수장고는 아무나 출입할 수 없으며 많은 보안 장치들을 거쳐야 하는 등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소장품의 안전을 위해 드러나지 않게 행해지는 것이랍니다.



그림1. 솜포대기 포장



그림2. 수장고



제549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7년 7월 12일)

특별전 <프랑스 근현대 복식, 단추로 풀다>(7)

- 20세기 전환기의 프랑스 패션과 단추

백승미 | 특별전시실 | 18:00~18:30

1910년대 프랑스의 복식은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뜻의 벨 에포크(Belle époque) 양식에서 간결한 스타일의 모더니즘 패션으로 변화했습니다. 새로운 복식의 이행기에 단추는 옷의 구성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었습니다. 점과 선이 되어 늘씬한 윤곽을 강조하는가 하면, 술기를 따라 여러 개의 단추가 연결되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천이나 끈으로 덮은 공 모양의 싸개 단추는 여성 상의와 일자 스커트의 앞면을 장식했으며, 이국적인 색채를 띤 단추 장식은 이전 시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20세기 패션의 전환점을 만든 선구적 디자이너는 바로 폴 푸아레(Paul Poiret, 1879-1944)였습니다. 그는 수백 년 간 이어져 온 코르셋과 패티 코트를 없애고, 여성의 신체를 더 자유롭게 만든 디자이너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디자인에서는 섬세함이 중요했습니다. 그는 종종 디자인에서 섬세함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미학적 열쇠가 되는 신비스런 기하학적 작업”이라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에게 단추는 의상의 디자인과 색 배합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1907년 제작된 <멜로디Mélodie>라는 이름의 드레스는 그의 미학적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보라색 벨벳과 *다마스크(damask)로 만든 이 드레스의 상의에는 목 부분에 단 한 개의 단추가 있습니다. 노랑과 빨강이 동심원을 그리는 매우 단순한 문양의 이 단추는 플라스틱의 일종인 젤러리스로 만든 것입니다. 값비싼 장식도 아니고, 부착의 위치도 전통적인 관습을 따르고 있지 않지만, 이 작은 단추는 옷 전체의 균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삼각형을 이루듯 붉은 장식선의 꼭지점에 놓여, 옷의 구성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전환기, 많은 의복 장식품 제작자들이 폴 푸아레와 같이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시대적 상상력에 편승하여, 창의성과 노하우를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단추는 지금까지 시도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와 다양한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제 단추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중요한 창작의 매개체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마스크: 실크, 린넨, 울 직물에 아름다운 실로 무늬를 짜 넣은 두꺼운 직물의 일종



그림 1. 폴 푸아레, <드레스 '멜로디'>(부분), 1912년, 비단 벨벳, 망사, 채색한 코로조 단추 등 ©Les Arts Décoratifs, Paris



그림 2. 폴 푸아레 하우스, <폴 푸아레의 의상을 입은 모델>, 1920년대 ©Les Arts Décoratifs, Paris

<요지연도瑤池宴圖>로 신선 찾아보기

이재호 | 202호 회화실(궁중장식화 · 민화실) | 19:00~19:30

중국에서 도교는 종교를 넘어선 민족문화 그 자체입니다. 춘추전국시대에 이미 태동하여 2세기 후한 말에는 민중 종교로 발달하였고, 4~5세기 남북조시대에는 교리와 조직이 완비되었습니다. 유교와 불교, 오늘날의 사회주의에 이르기까지 어떤 이념도 도교만큼 세속적 욕망을 포괄하지는 못했습니다. 도교는 고구려를 시작으로 한국에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도교가 과급력 있는 종교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토착의 마을신앙과 무속신앙이 복을 비는 세속 종교로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한국에서는 도교에서 기복신앙을 제외한 여러 요소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의학에서 몸과 마음을 보양하는 것이 질병 치료보다 근본적인 건강 비결이라 보는 것은 양생술의 영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장생과 수복壽福 문자 등 장생과 복을 비는 도교 유래의 이미지는 조선시대 미술의 문양으로 널리 활용되었습니다.

<요지연도>는 왕의 장수를 기원하는 궁중회화입니다. 조선 왕실은 도교를 깊이 신봉하지 않았지만 신선들이 장수를 축원하는 <요지연도>는 한 전형이 세워질 정도로 널리 제작했습니다. 서왕모西王母가 주목왕周穆王을 곤륜산 요지로 초대해 연회를 베풀었다는 전승은 『목천자전穆天子傳』에 나옵니다. 이 그림에는 이외에도 모두 28위의 신선과 불보살이 등장해 장관을 이룹니다. 원나라 때 잡극雜劇에서 시작된 이러한 종합적 경향은 명대 소설 『서유기西遊記』에도 잘 나타납니다.

도교의 기반은 신선사상입니다. 양생술을 수련하면 불로불사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중국인에게 신선은 친근한 존재입니다. 하늘을 날고 기이한 술법을 부리는 상상력의 결정체입니다. 자연의 기운이 엉겨 태어나기도 하고, 사람이 수련하여 그 경지에 이르기도 합니다. 중국 문헌에는 실존했다는 여러 신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분명히 확인되는 신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나라 때 태자진太子晉, 춘추전국시대 금고琴高, 전한 때 소선공蘇仙公, 위진시대 황초평黃初平, 남북조 때 유해섬劉海蟾, 수나라 때 이철괴李鐵拐, 당나라 때 동화자東華子, 종리권鍾離權, 여동빈呂洞賓, 장과로張果老, 한상자韓湘子, 장지화張志和, 북송 때 조국구曹國舅와 수로인壽老人. 이외에도 분명히 알기 어려운 여섯 신선이 더 보입니다. 이들은 활동한 시대가 크게 다르지만, 신선의 세계에서 중요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불로장생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꿈이니까요.

제549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7년 7월 12일)

특별전 <아라비아의 길>(10)

- 타이마에서 발견된 청동무기

이양수 | 기획전시실 | 19:00~19:30

타이마에서 발견된 청동무기는 아라비아의 북쪽에 위치한 시리아와 레반트 지역에서 출토되는 것들과 유사하다. 이 지역은 청동기가 처음 출현한 아나톨리아를 비롯해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등 문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아라비아 반도 안쪽의 타이마는 오아시스 도시로서 교역로에 위치하여 인근 지역의 청동기가 교역을 통해 입수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타이마에서 출토된 청동기는 칼과 도끼인데, 전사를 상징하는 무기로서 장례 의례에 사용된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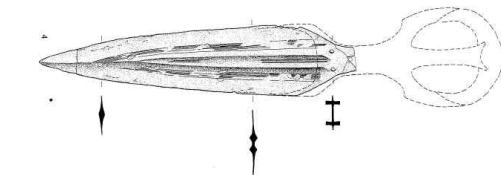
타이마에서 출토된 동검과 도끼는 형태적으로나 사용법에서 한반도에서 출토된 것들과 유사성과 차이점을 함께 가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양 지역의 유사성이 두 지역 간의 교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아마도 인류의 보편적인 공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청동기가 처음으로 출현한 서아시아에서부터 동북아시아로 전해지면서, 날카로운 날을 만들기 위해 가장자리는 얇지만 구부러지거나 부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 중앙은 두껍게 보강한다던가, 찔렀을 때 좀 더 깊이 들어가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도록 끝이 뾰족한 삼각형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무기가 가지는 보편적인 특징으로 시공간을 떠나 세계 어디에서나 확인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청동기들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 속 사막의 땅 아라비아에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참고도판>
동검 및 동부